열린 마당에서 한마음으로

'92 자주경희제·경희가족한마당 지상 사진전

"누이좋고, 매부좋고" 농산물 직거래

—지난 30일부터 2일간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농산물 직거래 장터

서울·수원 양캠퍼스 가을 대동제가 서울은 30일부터 2일까지, 수원은 29일부터 1일까지 각각 진행되었다. 체육대회 위주로 열린 이번 대동제는 경희철인대회, 열전달리는 고향인등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다.

이번 대동제는 교수·학생들의 화합이라는 커다란 명제아래 진행되었으나, 정작 하나가 되어야할 서울·수원 양캠퍼스 학생들이 하나될수 있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본보는 대동제 기간중의 행사를 카메라에 담아 사진전을 열고자 한다.

(편집자 註)

—지난 28일 수원캠퍼스, 철인경기 대회 여자부 결승전

"이번에는 홈런이다!" (정말일까?)

지난 1일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여자발야구 준결승전

"시 학생이 하나되어 부르는 경희찬가

경희가족이 부르는 한마음의 노래

—지난 1일 수원캠퍼스, 경희가족 장기자랑 한마당에서

불신·분열·나태 잡귀 귀신은 물러가라!

지난 30일 서울캠퍼스의 길놀이중 대동굿에서

"들어갈까, 말까?"

지난 30일 수원캠퍼스 사회대 농구동아리 「라바운드」, 대공대 농구동아리 「스냅」의 한판승부.

마사회의 '보장받은' 검은돈

온갖 음모와 속임수가 난무하는 도박판은 흔히 인생에 비유된다. 의리마저 저버리는 도박의 비정함이 이 세상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도박사들의 말로는 범인의 광범한 말로를 벗어나 주머으로 먹고 사는 폭력배들의 최후보다 더 비참하다.

도박사들에게 도박의 끝이 어디냐고 물으면 십중팔구는 경마라고 대답한다. 이는 마권의 수효에 따른 대중성이 포함되어 한번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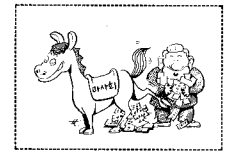
지난 9월 26일 경마 승부조작 사건은 이러한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이며, 2명의 조교사의 잇달은 자살은 그 말로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다.

그 후 대한 마사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도박이 가지는 부산물로서 폭력조직과의 연관, 그리고 드러난 마사회의 연간 매출액이 국민들을 사뭇 놀라게 했다.

현재 대한 마사회는 82년 4백3십억원이던 매출액을 올해는 1조원으로 잡을 정도로 외형상 국내 10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마사회의 급성장은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한탕주의로 급속히 변해가는 적신호이다. 1일 평균 순이익이 75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마권으로 한몫 잡아 보겠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음을 의미한다.

경마는 그 자체로 도박이 되진 않는다.



입장수입으로만 운영된다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권을 팔기 시작하면 그 마권은 카지노에서 쓰이는 칩이 된다.

마권도 1등을 맞히거나 1등에서 3등 사이의 한 말을 맞히는 단승식과 연승식보다 1, 2등을 동시에 맞혀야 하는 복승식에 95% 이상의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은 심화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경마의 투기화를 막는다는 취지하에 1인당 마권 구입 한도액을 2십만원으로 제한해 놓았으나 제도적 장치로 머무르고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마사회의 수입이 정부 산하 단체 중 가장 많다는 것은 흠이 아니다. 문제는 그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에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이 황금만능주의와 한탕주의에 빠져든다 할 지라도 그것을 계몽하진도록 노력해야 할 정부가 그것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제 한번 쯤 돌아보아야 한다. 정치도 박을 하려 정치 생명을 연장해 가는 정치인과 그것을 보고 배우는 국민들의 의식을.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바로 잡는 상호 발견을 위한 의식으로 올바르게 잡아 나가야 한다.

같이 잘 사는 사회, 더불어 함께 일하며 보람을 느끼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때이다.

'나'와 '우리'가 함께 커가는 기업 — 해태

한사람의 스타플레이어 보다
함께 호흡하는 팀웍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해태는 사원 한사람, 한사람의 능력을 귀하게 여기며
그 힘이 모여 생기는 큰 잠재력 또한 소중히 생각합니다.
'나'와 '우리'가 함께 커가는 기업 — 해태
해태로 오십시오!
함께 커가는 더 큰 보람을 나누십시오!

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부문 및 회사

응시직군	모집회사	전공학과 이공계	전공학과 인문계	모집인원	응시자격
무 역	해태상사(주)	섬유 공학	상경·법정 및 인문사회계열	000명	1. 정규 4년제대학 해당분야 전공자로서 1993년 2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기취득자 2. 196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유 통	(주)해태유통	전자계산·응용미술학			
광고 및 디자인	(주)코레드	–			
	(주)D & C	응용·산업미술학			
식 품	해태제과(주)	기계·건축·토목·전기·산업공학			
	해태음료(주)	기계·전자계산 식품 공학·응용미술학			
	해태산업(주)	기계·산업공학·식공			
	(주)넷 리	–			
금 속	미전금속(주)	금속공학·전자계산			

2. 전형방법

가. 1차 : 필기시험(영어·상식)및 성격검사
1)일시 : 1992. 11. 1(일) 09:00 2) 장소 : 중앙대학교
나. 2차 : 면접 및 신체검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소정양식) 2부 나 OMR입사지원 카드(소정양식) 1부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1992. 10. 12(월) ~10. 17(토) 09:00~17:00(단, 토요일은 13:00시까지)
나. 지역별 원서교부처

지역	교부처	주소	전화번호
서울	해태그룹 종합조정실	서울·마포구 마포동 140(다보빌딩 13층)	(02)716-8811
경남	해태 부산지사	부산시 북구 학장동 246-1	(051)92-8711~4
경북	해태 대구지사	경북 경산시 백천동 115-1	(053)812-7846~9
전남	해태 광주지사	광주시 북구 양산동 408-2	(062)571-2316~8
전북	해태 전주지사	전북 전주시 황학동 1가 238-3	(0652) 211-8256
강원	해태 원주지사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0-1	(0371) 43-0455~7
충청	해태 대전지사	대전시 동구 가양 2동 424-1	(042)627-0207~9

다. 접수처 : 해태그룹 종합조정실(서울)에서만 접수 (문의전화 : 716-8811, 717-5765)

5. 기 타

가. 국가보훈대상자는 증명서류 첨부시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나. 응시원서는 상기접수처에 직접 접수분에 한함. (우편응시원서는 접수처 아니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바람.

1992. 10.

해태인력관리위원회